

經驗의 詩的 變容

— 18세기 詩의 斷面 —

姜 大 虔

I

18세기 영시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그러한 역사적 이해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의 시와 담화(conversation)간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다. 이 시기에는 담화술이 신사와 숙녀의 교양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었다. 따라서 세련된 담화의 필요성은 이 시기의 많은 문인들에 의하여 강조되고 있다. *The Tatler*, *The Spectator*, *The Guardian* 등 당시의 유력한 정기간행물도 많은 지면을 세련된 담화의 성격과 의의에 관한 논의에 할애하고 있다. Samuel Johnson도 *The Rambler*에서 담화를 논하고 있고 Jane Austen은 담화술을 그녀의 작품의 주인공의 필수적인 자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18세기 영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교적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당시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coffee house나 chocolate house의 수요만 보더라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Restoration 이후 문화가 도시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상류사회의 gregarious한 유흥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세련된 담화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urban化의 경향은 사람들을 더욱 urbane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Hobbes와는 달리 Shaftesbury 경은 인간이 반드시 이기적인 동물만은 아니며 자기주위의 다른 존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amicable collision”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쳐서, 다시 말하면 서로 만나서 담화를 나눔으로써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거칠고 모난 면을 닦아 없애도록 하며 세련되게 만든다는 말이다. Bertrand Russell은 *The Conquest of Happiness*에서 담화술에 관하여 “It was very exquisite art, bringing the highest faculties into play for the sake of something completely evanescent”²⁾라고 말하고 있지만 담화는 사실상 개인의 지성면에 있어서나 성격면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요구하는 art였다. 그런데 James Sutherland에 의하면 18세기가 이해하고 실천하였던 담화술은 다 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³⁾.

1. restraint
2. propriety
3. an absence of emphasis

1) *Characteristics of Men, Manners, Opinions, Times*, ed. 1757, i, 49.

2) Chapter III.

3) *A Preface to Eighteenth-Century Poetry*, 1948, p.66.

4. consideration for others and the desire to give them pleasure
5. a willingness to subordinate what is merely personal or private or a matter of "self-expression" in favor of what is generally interesting and universally intelligible in polite society
6. a sense of proportion
7. the avoidance of mere display
8. the conscious imitation of the best models (in this case the conversation of the fine lady and the fine gentleman)

이러한 특질은 모두 18세기적 특질이라는 표현 속에 수렴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18세기 시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18세기의 가장 전형적인 산문에서도 볼 수 있다. 18세기에 있어서 시의 언어와 일상어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통속적인 관념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18세기의 시와 담화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담화는 혼자서 할 수 없는 활동이다. 그와 꼭 같이 적어도 18세기에 있어서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그 자신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고 다른 사람 즉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었다. 18세기 시인들은 독자를 상대로 하여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한 여러가지 방식으로 시를 썼지만 결코 자신을 상대로 하여 중얼거리는 이른바 告白詩를 쓴 일은 없었다. 이처럼 18세기 시인들은 시를 하나의 사회적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담화가 그렇듯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즉 독자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고 또한 독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억제 즉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와 질서라는 대립적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에 실현된다는 것은 이미 진부한 상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한 사회의 성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그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원만한 사회적인 교섭은 이루어질 수 없다. 복장, 행동, 담화 그리고 모든 자질구래한 일상적인 교섭에서는 Steele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관습이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기호나 견해를 사회의 관행에 종속시켜야 한다.」⁴⁾ 현대인의 행동이 18세기 상류사회의 행동보다 훨씬 자유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사회의 일반적 관습에서 이탈하는 nonconformists 혹은 eccentrics가 없다면 그 사회는 획일적, 천편일률적인, 말하자면 아주 재미없고 단조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Samuel Johnson은 대단한 담화가로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유는 인위적인 격식을 고수하던 그의 시대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격식을 차리지 않았던 그의 담화의 습관,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없이 내뱉는 습관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담화가로서의 명성은 가장 conventional 하였던 그의 시대에 그가 가장 unconventional 하였다는 역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Johnson의 담화는 18세기의 전형적인 담화라고는 볼 수 없다. Johnson이 다음 순간 또 어떤 말을 불쑥 하게 될까하고 사람들은 매우 조마조마 했지만 그것은 거북스러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열심히 사실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양해 위에 18세기의 세련된 사회는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Johnson의 담화가로서의 독창성은 18세기적인 decorum의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Lord Chesterfield가 자제심을 가지고 습

4) *Spectator*, No. 576, 4. Aug., 1714

관적으로 받아드렸던 한계를 늘 넘어섰다는 점에 있었다. Lord Chesterfield는 자기 아들에게 웃을 때에 조심할 점까지도 다음과 같이 자상하게 가르치고 있다.

Having mentioned laughing, I must particularly warn you against it; and I could heartily wish that you may often be seen to smile, but never heard to laugh while you live. Frequent and loud laughter is the characteristic of folly and ill manners: it is the manner in which the mob express their silly joy at silly things; and they call it being merry. In my mind there is nothing so illiberal and so ill bred, as audible laughter.... I am neither of a melancholy, nor a cynical disposition, and am as willing, and as apt, to be pleased as anybody; but I am sure that, since I had the full use of reason, nobody has ever heard me laugh.⁽⁵⁾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사회를 우리의 一擧手一投足이 비추어지는 거울로 보고 늘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며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II

Johnson이 담화에 열중할 때에는 가끔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나 과격한 표현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는 하지만 이러한 일이 결코 그의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의 시는 모두 사회를 의식하고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Byron의 경우와는 정반대이다. 실생활에서는 Byron처럼 사회를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때문에 그의 시에서 정서의 표현이 억제된 일은 없었다. 그것은 Byron이 살았던 시기는 이미 시인의 개인적인 감정이 시의 가장 적절한 소재로 생각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감정을 쉽사리 나타내지 않았다. Shelley의 친구인 Williams의 시체를 파냈을 때의 Byron의 행동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Shelley와 Byron의 친구인 Trelawny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Byron's idle talk during the exhumation of Williams's remains did not proceed from want of feeling, but from his anxiety to conceal what he felt from others.... He had been taught during his town life, that any exhibition of sympathy or feeling was maudlin and unmanly, and that the appearance of daring and indifference denoted blood and high breeding.

18세기 시인들이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의식 때문에 정서적 표현에 있어서 억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정서적 표현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용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Johnson이나 Byron에 관한 언급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18세기 시인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느낌을 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소박한 논리이다. 그리고 18세기 시에 정서가 존재치 않는다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라고 할 것이다.

5) *Letters*, ed. Bonamy Dobrée, 1932, iii, 1115f. (9 Mar., 1748).

6) John E. Trelawny, *Recollections of the Last Days of Shelley and Byron*, ed. E. Dowden, 1906, p.90.

18세기 영국인이라고 하여 Elizabeth 朝 시대나 Victoria 朝 시대의 영국인처럼 부인이나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강렬하게 느끼지 말라는 법은 없다. 18세기 영국인이라고 하여 화창한 봄날을 즐기고, 사랑하고, 지난날을 회상하며 지금 여기에 없는 청춘을 슬퍼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18세기 영국의 시인들도 이러한 감정을 누구 못지않게 사무치게 느끼지만 다만 다른 점은 이러한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고 직접적인 것이 못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훌륭한 군인이나 정치가의 죽음을 당하여 온 국민이 느끼는 슬픔이나 애국심 등 이른바 사회적인 감정을 18세기 시인들은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내밀한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감정이 자기 혼자만이 느끼거나 기껏해서 친한 친구에게나 털어놓기에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시인들은 Wordsworth 처럼 이렇게 외칠수는 없었다.

But she is in her grave, and, oh,
The difference to me!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라든가,

"O mercy!" to myself I cried,
"If Lucy should be dead!"
("Strange Fits of Passion Have I Known")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의 노출은 18세기 독자들에게는 유치한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실상 Wordsworth의 시는 단순하고 유치하다는 비평 때문에 독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경과가 필요했다. *The Edinburgh Review*의 창설자이자 편집자였던 Francis Jeffrey는 18세기적인 시의 기준이 서서히 퇴조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그것을 집요하게 옹호하였던 비평가였는데, 그의 Wordsworth에 대한 공격은 자못 신랄하였다. 그는 모든 대규모적인, 세련된 사회에는 일반적 취향이라는 것이, 또한 "a certain tact, which informs us at once that many things, which we still love and are moved by in secret, must necessarily be despised as childish, or derided as absurd"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전제 한 다음 Wordsworth에게는 이러한 tact가 전혀 없다고 개탄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f Mr. Wordsworth, instead of confining himself almost entirely to the society of the dalesmen and cottagers, and little children, who form the subjects of his book, had condescended to mingle a little more with the people that were to read and judge of it, we cannot help thinking that its texture might have been considerably improved.⁽⁷⁾

Jeffrey가 대담하게 표현한 이러한 말속에는 바로 18세기 사람들이 가졌던 시와 시인에 관한 전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18세기적인 관념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 시

7) *Jeffrey's Essays from "The Edinburgh Review"*, The Universal Library, n. d. p. 529f.

의 독자는 일정한 수준의 교양을 가지고 있는 세련된 남녀이며 그 교양은 도시적 귀족풍의 그것이라는 점, 그리고 둘째로 이러한 시의 독자들은 어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관심과 전형적인 사고 및 감정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시로부터 기대하는 즐거움도 이와 같은 특정한 종류의 것이라는 점이 될 것이다. 물론 18세기 독자들은 그들의 전형적인 사고 및 감정양식이 그들의 시대의 특유한 것이라는 지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오늘날의 영시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 및 감정양식이 우리 시대에만 해당되는 특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다. 그리하여 시와 시인에 관한 우리 시대의 관념을 가지고 18세기의 시와 시인을 재단하려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간혹 있다. 그것은 어쨌든 18세기 시의 독자, 다시 말하면 Jeffrey의 이른바 「시를 읽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사람들」의 사고 및 감정양식이 Covent Garden의 porter나 Cumberland의 목동의 그것이 아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독자들은 모든 감정을 표현할 때에 어느 정도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세상사람들에게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감정 이외의 감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III

Rousseau와 같이 자신의 충동이 명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려는 사람에게 이러한 18세기의 풍습이 중압감을 안겨다 주었으리라는 것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 자신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In our day, now that more subtle study and more refined taste have reduced the art of pleasing to a system, there prevails in modern manners a servile and deceptive conformity; so that one would think every mind had been cast in the same mould. Politeness requires this thing; decorum that; ceremony has its forms, and fashion its laws, and these we must always follow, never the promptings of our own nature.

그는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한다.

We no longer dare seem what we really are, but lie under a perpetual restraint; in the meantime the herd of men, which we call society, all act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exactly alike, unless very particular and powerful motives prevent them.⁽⁸⁾

그러나 Rousseau가 다시 살아나 20세기의 문학적 현장을 본다면 별로 불평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도 어떤 생면부지의 사람이 열차 속에서나 식당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진 죄를 털어놓겠다고 고집하면 우리는 여전히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제한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문학에 있어서 우리 시대는 모든 종류의 자기노출이나 과시에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18세기 영국에서는 개인

8) *A Discourse on the Arts and Sciences*, 1750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trans. G.D.H. Cole, p. 132).

의 사회적인 생활과 개인의 사적인 생활간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벽이 무너진 오늘날의 우리에게 18 세기의 시가 감정의 내밀성을 곁하고 있다고 느끼기 쉽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개성적으로 彩色된 문학에 습관이 되어 있는 20 세기의 독자들이 18 세기 영시에서도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극히 당연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가령 Thomas Gray 의 "Ode on a Distant Prospect of Eton Collegé"에서

Ah happy hills, ah pleasing shade,
Ah fields belov'd in vain,
Where once my careless childhood stray'd,
A stranger yet to pain!

을 제외하고는 Gray 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곳은 없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이 시가 Gray 의 감정을 읊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인생의 파란곡절을 겪은 성인으로서 Gray 가 느끼는 人生無常의 감회가 이 시에서 스며나오고 있는 것이다. Virgil 은 이러한 감회를 「事物에 눈물 있도다. 그리고 事物의 無常은 마음을 치도다」(*Sunt lacrimae rerum et mentem mortalia tangunt*)⁹⁾라고 표현한 바 있지만 Gray 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이 시에서도 어린 시절의 일들을 개별적으로 회고할 때에는 그의 감정은 은연중에 우리 가슴에 와 닿고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치는" 것이다.

Who foremost now delight to cleave
With pliant arm thy glassy wave?
The captive linnet which enthrall?

18 세기에는 시인이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느꼈을 경우에도 그것이 개인적, 사사로운 것인 한에는 쉽사리 발표하려고 하지 않았다. 강렬한 감정이 작열하거나 솟구쳐오르는 순간 그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던 간에 그것을 냉정한 상태로 되돌아가서는 발표하려고 하지 않았다. Johnson 의 가장 개인적인 감정을 읊은 시들 가운데 몇편은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라틴어와 같은 死語는 암호와 같기 때문에 Johnson 이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영어보다는 암호와도 같은 라틴어를 택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쓴 이러한 시를 그의 생전에는 발표하지 않았다.

spontaneous emotion 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것은 18 세기 시인들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기 때문에 *Night Thoughts* 에서 Edward Young 이 순전히 감정에 委託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우리는 그의 지나친 노출벽을 보는듯 하여 그의 감정의 진실성마저도 의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기분은 시인이 내복바람으로 있는 것을 우연히 본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슬그머니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 Wordsworth 에게는 극히 자연스러웠던 일이 18 세기 시인들에게는 몹시 거

9) *Aeneid* I, 462.

복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것을 속으로 감추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것을 자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Gray는 오래동안 병고에 시달리다가 일어나 차차로 원기를 회복하는 느낌을 어떤 무명의 회복기의 환자——“the wretch”——를 빗자한 몰개성적,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The meanest flowret of the vale,
The simplest note that swell the gale,
The common Sun, the air, the skies,
To him are opening Paradise.
("Ode on the Pleasure Arising from Vicissitude")

그러나 Wordsworth에게는 그러한 몰개성적,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시를 쓴다는 것은 몹시 부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졌을 것이다. 똑 같은 경우에 Wordsworth는 Gray의 “the wretch”와 같은 3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1인칭을 사용한다. 그는 1인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두막집 늙은이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소박하고 어찌면 수다스럽기도한 직설적인 말——그의 소위 “the language really spoken by men”——로 표현한다.

Oh Sir! I get about a bit,
I see the blessed sun on high;
And I must think, do all I can,
'Tis Paradise in yon blue sky.

Wordsworth의 시는 모두 그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취한다. 가령 그는 Keats의 소위 “egotistical sublime”¹⁰⁾의 시인답게

And much it grieved *my* heart to think
("Rhimes Written in Early Spring")
and, Oh,/The difference to *me*!
("She Dwelt among the Untrodden Ways")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 ")
I thought of Chatterton, the marvellous Boy,
("Resolution and Independence")
Ne'er saw *I*, never felt, a calm so deep!
("Composed upon Westminster Bridge, September 3, 1802")

식으로 표현한다. 이와 반대로 Gray의 시는 한결같이 몰개성적인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 두 시인간의 차이가 감정이 한쪽에는 있고 다른 쪽에는 없다는 그런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시인의 차이는 그들이 각각 살고 있던 시대의 표

10) Keats's letter to Richard Woodhouse, 27 Oct., 1818.

현상의 convention의 차이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는 각각 시인과 독자와의 관계가 달랐다는 문제로 귀착된다. 18세기의 시가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와 얼마나 거리가 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episode에서도 잘 나타난다.

1718년 여름 Pope가 Stanton Harcourt라는 귀족의 집에 초청되어 묵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하루는 그 지방에 천둥과 번갯불도 요란스럽게 폭우가 쏟아졌다. 건초가리에서 일하고 있던 Lord Harcourt의 하인들은 제각기 사방으로 흩어져서 비를 피했다. 그 가운데는 John Hewet와 Sarah Drew라는 한쌍의 연인이 있었다. 지금도 그들은 Berkshire의 여러 마을에서 유명하다. 요란한 우뢰에 기겁한 Sarah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John은 황급하게 몇 무더기의 건초를 끊어다가 그녀를 덮어주고 자신도 그녀 옆에 앉았다. 뇌우가 그쳤을 때 다른 일꾼들은 모두 돌아와 보이지 않는 John과 Sarah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 있었다. 그런데 John은 마치 한 팔로 벼락을 막아 주려는듯이 Sarah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Sarah는 눈섭이 약간 그을리고 두 가슴 사이에 작은 반점이 있었을 뿐, 그 밖에는 어떤 자국이나 변색한 데도 없었다. Pope는 이 슬픈 사연을 여러 사람들에 대한 편지 속에서 전하고 몹시 가슴아프게 생각한 그의 심정을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두 사람을 애도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일은 Pope의 경우에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Pope의 소재는 Wordsworth에게는 다루기에 아무런 거북스러운 점도 없는 오히려 안성맞춤의 소재——*Lyrical Ballads* 속의 한편으로 될직한——였다. 그러나 같은 소재가 Pope에게는 다루기에 아주 거북스러운, 전혀 맞지 않은 소재였다. Pope는 이 사건을 감동적인 사건으로 다룰수는 없었으며 더구나 그것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써 제시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개성화된 경험으로서 제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는 Lord Harcourt에게 이 연인들의 墓碑詩를 한편 써야되겠다고 말하고 그들을 애도하는 시를 썼는데 그 결과는 decorum을 지킨 시라고는 할 수 있으나 결코 「강열한 감정의 自發的 流露」로서 성공한 시라고는 할 수 없었다. 다음은 그가 쓴 몇편의 묘비시중의 하나이다.

When Eastern lovers feed the fun'ral fire,
On the same pile their faithful fair expire:
Mere pitying Heav'n that virtue mutual found,
And blasted both, that it might neither wound,
Hearts so sincere th' Almighty saw well pleas'd,
Sent his own lightning, and the victims seiz'd.

이 epitaph가 “a cry of heart”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은 것을 이 epitaph에서 찾으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경험의 變容——18세기적 변용——이다. Burns, Blake, Wordsworth와 같은 시인들은 그들의 경험을 그 청신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독자에게 전해줌으로써 독자가 그것을 재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Pope의 epitaph는 그가 정말로 가졌던 감동적인 경험이 그 원천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험의 직설적 표현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의 epitaph는 그러한 경험의 decorous한 표현, 그 보다는 그러한 경험이 불러오는 보편적 내지는 일반적인 思念의 decorous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Pope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경험의 예리한 충격은 제거되게 마련이지만 사실상 18세기 시인들은 그들의 시에서 그러한

충격을 표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Pope 자신의 개인적 감정은 일반적, 보편적인 진술 속에 적당히 포섭되고 숨겨지고 그의 정신은 오직 이 epitaph를 짓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한 시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경험의 시적인 변용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시는 “a turning loose of emotion”이 아니라 “an escape from emotion”이며 “the expression of personality”가 아니라 “an escape from personality”이다. 여하튼 Pope의 epitaph에서는 두 연인의 슬픈 사건과 이에 수반되는 정서는 양식화되고 시인의 개인적 감정과는 다른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Eliot의 말을 빌어 “artistic emotion”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18세기의 상류층 독자는 적라라한 경험보다는 이러한 「예술적 감정」을 그들이 읽는 시에서 찾았던 것이다.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우고 얻어맞아 길가의 도랑에 던져져 있는 Joseph Andrews를 보고 역마차를 탄 부인이 “O J-sus! A naked man! Dear Coachman, drive on and leave him”¹¹⁾이라고 말했지만 decorum이라는 옷에 감싸여지지 않은 적라라한 경험에 대하여 보이는 18세기의 시인과 독자의 반응은 바로 이런 類의 것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IV

John Hewet와 Sarah Drew의 epitaph에서 Pope의 감정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된 진술 속에 감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decorum의 베일을 통해서도 Pope 자신의 개인적 감정의 모양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시가 있다. 그것은 그가 한 때 연정을 품었던 여성 Miss Blount(Teresa)에게 보낸 서간시, “An Epistle to Miss Blount on Her Leaving the Town After the Coronation”이다. 시인은 George I의 대관식 직후에 시골로 내려간 그의 연인을 생각한다. 그는 “dull aunts and croaking rooks”나 상대하고 사는 그녀의 따분한 시골생활을 이렇게 상상한다.

muse and spill her solitary tea;
Or o'er cold coffee trifle with the spoon,
Count the slow clock, and dine exact at noon...

이것은 “I have measured out my life with coffee spoons”에 못지 않게 무의미하고 권태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감정을 肉化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ine exact at noon”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별로 할일이 없는 이 따분한 시골 생활 속에서 Pope의 연인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대관식 축하행사들, 공작들과 백작들, 무도회, 기타의 화려한 행사와 즐거움으로 채워진 런던의 생활을 동경하며 환상에 빠진다. 그러다가도 그녀의 부채가 한번 가볍게 펄럭이면 그러한 환상은 어느새 간 곳 없이 되어버린다. 이와 똑같이 시인은 시골에 있는 그의 연인에 관한 백일몽에 빠져 있다가도 John Gay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면 어느새 런던에 사는 자신의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So when your slave, at some dear, idle time,

11) Chapter XII of *Joseph Andrews*

(Not plagu'd with headaches, or the want of rhyme)
 Stands in the streets, abstracted from the crew,
 And while he seems to study, thinks of you:
 Just when his fancy points your sprightly eyes,
 Or sees the blush of Parthenissa rise,
 Gay pats my shoulder, and you vanish quite;
 Streets, chairs, and coxcombs, rush upon my sight;
 Vex to be still in town, I knit my brow,
 Look sow'r, and hum a song—as you may now.

여기서 Pope의 필치는 Miss Blount의 부채를 펴려는 손짓이나 Pope의 어깨를 툭치는 Gay의 동작처럼 경묘하고 casual하다. 그 만큼 Pope의 감정은 상류사회의 인위적인 無心함(studied carelessness)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잘 통제되어 있다. Robert Herrick는 “Delight in Disorder”에서 전체적으로 단정한 여성의 옷차림 속에 흐르는 한가닥의 호트러집이 주는 미묘한 멋이나 매력을 읊고 있지만 그러한 멋은 sprezzatura,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무심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전체적으로 無心한 pose를 취하고 때로는 다정하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humorous하고 장난기마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시인이 이러한 인위적인 pose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는 시인의 감정이 있다. 비록 그것이 Burns의

Yestreen, when to the trembling string
 The dance gæed thro' the lighted há',
 To theé my fancy took its wing
 I sat, but neither heard or saw:
 Tho' this was fair, and that was braw,
 And yon the toast of a' the town,
 I sigh'd, and said amang them a:—,
 “Ye are na Mary Morison!”
 (“Mary Morison”)

만큼 열렬한 것이 못되고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기는 하지만 Pope의 서간시가 연애시임에는 틀림없다. 이 서간시를 받은 장본인 Miss Blount는 상류사회의 인위적인 격식이나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Pope의 연정을 알아보는데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경험을 시적으로 변용시키는 일보다는 시를 경험에 밀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Wordsworth의 “The Idiot Boy” 같은 시를 높이 평가한다. 여기서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상적 경험이 직천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다. 달 밝은 밤에 pony를 타고 돌아다니는 천치 소년의 기분, 자식을 잃었다고 무척대고 단정하고, 허둥지둥하며 가슴조이며 거의 미치다시피 된 그 천치 소년의 어머니의 감정 등이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다. 거의 모든 것이 “But when the pony moved his legs...”와 같이 천치 소년의 눈에 비친 모습대로 그려지거나

She looks again—her arms are up—
She screams—she cannot move for joy...

처럼 제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관점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행들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감정이 가장 단순화 된 형식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마치 원시인들의 벽화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천치 소년의 경험도 그 어머니의 그것도 아닌 경험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다. 한밤중의 정적, 푸른 하늘 높이 휘영청 밝은 달이 떠있는 고요한 소도시, 이상스러우리만치 고요한 동트기 전의 한 순간——

The streams with softest sound are flowing,
The grass you almost hear it growing——

부엉이의 울음소리, 잠에서 덜 깬 작은 새들이 바삭거리기 시작하는 산을타리, 차츰 기울어져가는 달빛——“so pale you scarcely looked at her”——등 모든 것이 Wordsworth의 다른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單純直截하게 표현되고 있다.

“Idiot Boy”의 경우도 그렇지만 John Donne의 “The Calme”이나 Coleridge의 “Frost at Midnight”에서도 경험은 그 본래의 빛과 색깔 혹은 강렬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시적 취향은 이와 같이 그 “native hue”——Hamlet의 표현을 빌리자면——를 잃지 않은 경험의 표현을 시에서 요구하며 일반화된 경험의 표현보다는 개성화된 표현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18세기 시에서 개성화된 경험의 표현을 찾으려는 시도는 많은 경우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18세기 시인에게 그렇게 표현할 경험이나 감정 그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속단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단정은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인간경험의 계속성을 부인하거나 그 단절을 전제하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설혹 그러한 이론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일부 18세기 시인은 그것을 실천적으로 부인할 것이다. 가령 Ambrose Philips의 “Winter Piece” (“An Epistle to the Earl of Dorset”)는 예리한 관찰에 기초한 경험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8세기 시인들은 그들의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한 일과 세상에 공개해도 좋다고 생각한 일, 개인의 일기어나 적어두기에 합당한 경험과 정식으로 시에 포함시키기에 합당한 경험을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1791년 Boswell의 *The Life of Johnson*이 처음으로 출판되었을 때 그 私生活에 관련된 내용은 세인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으며 Wordsworth마저도 “The Life of Johnson by Boswell had broken through many pre-existing delicacies, and afforded the British public an opportunity of acquiring experience, which before it had happily wanted”¹²⁾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따라서 1765년 Rousseau의 *Confessions*가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에 독자들이 받은 충격은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18세기 사회에 존재했던 이러한 inhibition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18세기 시에 나타나는 격식이나 정서적인 통제를 감정의 고갈이나 불모성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어느 시기의 시의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18세기 영시에 있어서는 그 역사적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2) *Wordsworth's Literary Criticism*, ed. Nowell C. Smith, 1905, p.208

